

---

# 범죄청소년의 성격차원 성향

## Personality Dispositions of Crime Youth

---

김종수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Jong-Soo Kim(2000cops@hanmail.net)

---

###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격차원의 성향을 탐색하여 범죄유발의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으로 일반 고교생 148명과 소년원생 15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이현수(2004)가 표준화한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지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t-test를 활용하여 일반고와 소년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중심어** : | 성격성향 | 성격특성 | 소년원생 | 범죄행동 | 반사회성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sonality dispositions of crime Youth. Subjects in this Study are 148(High School Students) and 150(Juvenile Reformatory).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is Korean-Version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s standardized by Hyun-Soo Lee(2004) and were administered to two groups respectively. Procedures for processing data were used t-test and sought the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 **keyword** : | Personality Dispositions | Personality Traits | Juvenile Reformatory Students | Criminal Behavior | Anti-Socialism |

---

## I. 서론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를 거쳐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라는 전통적 의미의 공동체적 기반, 시대정신, 그리고 사회적 통제기반이 붕괴되면서 최근에는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층이 증가일로에 있다. 언론보도나 기사를 보면 '반인륜적, 반사회적 강력범죄', '상식을 벗어난 범죄',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흉악범', '충격적 사건', '인면수심의 범죄' 등과 같은 기사 머리말이 자주 등장한다.

특히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의 청소년 비행 및 범죄양상이 점차 조폭화, 집단화, 저연령화, 도시집중화, 누범화 그리고 성범죄비율이 증가추세에 있고, 학생범죄와 학교폭력, 중류층가정 출신의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최종 또한 살인, 강도, 방화 등으로 강력범죄화 되고 있고, 죄질 또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더욱 악랄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재범과 누범을 경험하고 있고, 성인범죄자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1]. 오히려,

범죄양상이 성인범죄를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7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2006년 여성 및 소년범죄자 수는 총 419,470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2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검거된 범죄자 100명 중에서 여성이 약 16명, 소년이 약 4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범죄자는 328,842명으로 지난해 328,845명과 비슷했고, 소년범죄자는 90,628명으로, 지난해 83,477명에 비해 8.6% 증가하였다”고 밝혔다[2].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렇듯이 인간의 범죄행동도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고, 범죄행동의 주된 발생원인에 대해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해 온 것이 현재까지의 연구경향이었다. 따라서 범죄행동의 유발요인을 사회·문화적 요인들에만 귀인시킬 수만은 없고, 인간의 모든 행동이 그렇듯 범죄행동도 개인의 독특한 성격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과이기 때문에 성격차원성향과 범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여기서는 범죄행동과 성격차원 요인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Andrews와 Bonta는 “범죄를 사회경제 지위수준(SES)와만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것은 결코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식적인 범죄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변인인 性格(personality)을 직접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격이란 연령, 성, 인종, 종족, 혹은 지리적 영역에 따라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특정의 사회적 장소 내의 개인들간에서 본연히 드러나는 사고, 감정, 그리고 행위의 특유의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3]. 범죄행동과 성격차원의 관계를 범죄성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로는, Eysenck와 Eysenck의 성격차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한 Putnis[1982]의 연구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범죄자들은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또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범죄자일수록 재범률도 높았다는 것이다[4].

또한 Eysenck와 Eysenck(1985)의 “범죄 그 자체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특징이 결정되고 더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개인의 환경과 성격이 결합되어 범죄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이 연구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5].

이처럼 주위환경과는 관계없이 범죄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또 환경의 영향을 약화시키려는 성격차원의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현수는 범죄성격(criminal personality)은 정상인에 비해 보다 외향적이며 신경증적 특징이 두드러지고, 외향성은 내향성에 비해 조건형성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이들은 조건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칙을 쉽게 습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반사회적 행동을 제지하는 능력도 습득할 수 없다.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비교적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 불안은 하나의 충동으로 작용하게 되어 반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H.J Eysenck(1967)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6].

또한, 정신병질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언제나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크게 불안해하거나 긴장하는 일이 없으며 신의와 성실이 결여되어 있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실로 뉘우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며, 자기중심적이고 自愛的이어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관계 역시 원만치 못하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때는 특히 난폭해진다[7].

반사회적 행동(포괄적 의미)을 하는 사람도 신경증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뿐만 아니라,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도 역시 높다고 주장한다[8].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을 하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9].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는 가정과 사회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로 인해 교도소나 교정기관에 수감되는 일도 빈번하다.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정신병질자(반사회성성격장애자)로 알려져 있다[10].

일상생활에서 범죄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 해당 행위자에게 사법당국의 제재가 가해지는 행위를 뜻한다[11].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성격차원간의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해 생물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하는 학자들은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중독성, 범죄성, 충동성, 모험성이라는 성격차원을 그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EPQ(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의 정신병적 경향성 차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동정심이나 감정이 결여되어 있는 편이다[12]. 최근의 이수정·허재홍의 “잠재적 범죄위험 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이라는 방대한 문헌연구에서도 범죄행동과 성격차원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13].

또한 성격검사를 통해 범죄행동과 성격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검토한 Vold·Bernard·Snipes는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인들은 신경질적이거나 마음에 갈등이 심한 범법자들로 특정의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14].

나아가, 범죄행동과 성격차원의 관계를 충동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 이인혜에 의하면 Gray(1981)의 “범죄자들은 처벌자극에 대해서는 조건화가 안 되지만, 보상자극에 대해서는 정상인들과 다른 없는 조건화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는 이들의 강한 충동성 때문이라는 연구”를 인용하고 있고, Claridge(1985)의 “충동성이 높고 불안이 낮은 사람은 본질적인 정신병질자”라는 연구와, 충동성은 반응의 속도가 빠르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예견능력이 부족한 성격특질로 정의하고 있는 Barratt(1983)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충동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그들의 인지적, 운동적 및 정신생리적 평가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15]. 이는 H.J Eysenck가 내린 성격차원 연구의 정의와도 일치하는 것이다[16].

이에 대해 이상현도 정신병질자의 증상은 정서통제의

결함, 충동성, 소아적인 행위의 지속, 경험을 살리는 능력의 결여, 장애에 대한 배려결여, 자기신뢰의 결여, 집단에의 적응불안, 지루함의 인내능력 결여, 무책임 등이라고 지적하면서 범죄행위와의 관련을 지적하고 있다[17]. 이처럼 본 연구는 이상에서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찰한 것을 근거로 청소년 범죄자들의 성격차원의 영향을 탐색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범죄집단으로 경기 소재 J정보산업학교(구. A소년원)에 시설 내 처우중인 소년원생 150명을 선정하였고, 비교집단으로 서울 소재 K고등학교 92명과 B고등학교 56명 총 148명의 일반 고교생을 선정하였다. 연령은 15세에서 19세까지이고 평균연령은 17세이다.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이현수, 1997)의 I부와 III부를 활용하였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I, II, III부는 성인용으로 Eysenck Personality Scale-Adult: EPS(Eysenck & Eysenck, 1991)를 우리나라 표집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I부는 원저자의 EPQ-R(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Revised, Eysenck, et al., 1985, b)을 개정한 것으로, 이 검사의 전신인 EPQ는 저자와 원저자와 공동으로 한국판을 표준화한 바 있다(아이젠크/이현수, 1985). EPQ는 ①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 : P), ② 외향성-내향성(extraversion-introversion : E), ③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 : N) 및 ④ 허위성(lie : L)의 네 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었다.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I부는 EPQ에 의해 측정되는 네 가지 성격특성 외에 ⑤ 중독성(addiction : A)과 ⑥ 범죄성(criminality : C) 등 모두 6개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검사는 6개의 하위척도, 8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III부는 이미 출판된 충동성 검사(impulsiveness Questionnaire : IVE, Eysenck & Eysenck, 1978;

Eysenck et al., 1985)로서 ① 충동성(impulsiveness : Imp), ② 모험성(venturesomeness : Ven), 그리고 ③ 감정이입(empathy : Emp)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각 척도별 Cronbach-alpha 계수는 [표 1]과 같다. 전체적인 신뢰도 분석결과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뢰도 분석

	척도	문항수	Cronbach-alpha 계수
I부	정신병적경향성	17	0.671
	외향성-내향성	18	0.672
	신경증적경향성	26	0.839
	허위성	20	0.683
	중독성	19	0.745
	범죄성	21	0.827
III부	충동성	14	0.692
	모험성	14	0.706
	감정이입	12	0.681

아이젠크 성격검사의 개인 프로파일을 활용하면 보다 확실한 개인성격 특성을 진단할 수 있다. 이현수[18]에 의하면 정신병적 경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동정심이 부족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하다. 또한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독창적이며 진귀한 물건을 수집하는 별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위험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외향성-내향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항상 기분이 좋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모험심이 강하고 농담을 잘하여, 활동적이고 생기가 넘친다. 또한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정신·신체적 질병을 자주 호소한다. 일단 손상된 정서상태는 쉽게 원상복구되지 않고, 기분 변화가 심해 쉽게 우울해지며, 비합리적이며 강직하다. 또한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허위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솔직한 자신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

며,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은 모두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랑하는 편이다. 또한 남의 잘못을 훈계하면서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중독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섭식장애, 특히 병적 기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과 약물 중독자에게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성 점수도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이는 범죄성과는 무관하며 여자에 비해 남자의 중독성 점수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이 흔히 호소하는 행동이나 감정의 특성으로는 자신을 बे풀기 위해 기부를 하며,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물건을 빼앗기도 한다. 또한 남을 속이며, 다른 사람보다 우정이 쉽게 손상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범죄성 점수는 비행자와 상습적 범죄자를 감별 및 진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여자에 비해 남자의 범죄성 점수가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신경증적 경향성 점수가 높다. 본인이 흔히 호소하는 행동이나 감정의 특성으로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감정이 쉽게 상하고, 자주 실증을 내며, 끈직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걱정한다. 또한 건강을 걱정하며, 불면증이 심해 걱정하고,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충동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다. 후에 가서 발뺌하게 싶은 일에 자주 관여하며, 무계획적인 야간의 출을 즐기고,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모험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모험을 좋아한다. 번지점프나 다이빙처럼 위험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경향이 있으며, 무섭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도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 또한 목숨을 걸고 등반하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하고, 파수운전을 해 보고 싶어 한다. 또한 위험한 곳을 가보고 싶어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해 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이입 점수가 높은 사람은 옆 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며, 지나치게 수줍어하는 사람을 보면 딱한 생각을 하고 한다. 친구의 어려운 일에 깊

은 관심을 가지며, 불길한 소식과 같이 안 좋은 소식은 남에게 전하길 어려워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집할 수 없으며, 옆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 3. 조사실시

첫째, 범죄집단에게는 수용시설 관계자에게 의뢰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집단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비교집단에게는 연구자가 학교의 각학년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조사를 의뢰하였다.

셋째, 범죄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조사 실시기간은 2008년 4월 7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약 32일간이 소요되었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조사 자료는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아이젠크 성격검사 I부와 III부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같은 기초통계량을 산출하고, 특히 I부 검사에 대해서는 T점수를 산출하여 표준화 집단의 T점수와 비교하였다. 또한 t-test를 활용하여 일반고와 소년원간의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 하위척도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결과

먼저, 일반 고교생과 소년원생들의 아이젠크 성격검사 I부의 하위척도인 정신병적 경향성과 내향성-외향성 등 6개의 하위척도 점수들의 T점수를 표준화 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2]과 같다.

표 2. 성격검사 I부의 하위척도별 일반 고교생과 소년원생의 평균, 표준편차

	일반고와 소년원	N	표준화집단 T점수	T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정신병적 경향성	일반고	148	59	39.38	0.60	0.05
	소년원	150		59.89	0.87	0.07

외향성-내향성	일반고	148	35	48.49	8.85	0.73
	소년원	150		51.49	10.85	0.89
신경증적 경향성	일반고	148	54	47.68	9.39	0.77
	소년원	150		52.29	10.08	0.82
허위성	일반고	148	40	51.78	9.53	0.78
	소년원	150		48.24	10.17	0.83
중독성	일반고	148	55	48.36	9.80	0.81
	소년원	150		51.62	9.96	0.81
범죄성	일반고	148	43	47.78	9.20	0.76
	소년원	150		52.19	10.30	0.84

위 [표 2]에 의하면, 정신병적 경향성은 표준화집단이 59점이며, 일반고는 40점, 소년원이 60점으로 나타나 일반고는 아주 낮게, 그리고 소년원은 표준화집단과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범죄소년들이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성-내향성은 표준화집단은 35점, 일반고는 48점, 소년원은 51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고와 소년원 모두 표준화집단보다 외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표준화집단은 54점, 일반고는 48점, 소년원은 53점으로 나타나 조사 집단이 표준화집단보다 모두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허위성은 표준화집단이 40점, 일반고가 52점, 소년원이 48점으로 나타나 모두 표준화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독성은 표준화집단이 55점, 일반고가 48점, 소년원이 51점으로 나타나 모두 표준화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범죄성은 표준화집단이 43점, 일반고가 48점, 소년원이 52점으로 나타나 모두 표준화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격검사 III부의 하위척도별 T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고와 소년원	N	T점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충동성	일반고	148	46.39	8.61	0.71
	소년원	149	53.59	10.01	0.82
모험성	일반고	148	51.02	9.46	0.78
	소년원	149	48.99	10.44	0.85
감정이입	일반고	148	49.71	9.85	0.81
	소년원	149	50.29	10.17	0.83

다음으로, 일반고와 소년원 청소년들의 아이젠크 성격 검사 Ⅲ부의 하위척도별 T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하였다. 비교결과는 위 [표 3]와 같은데, 충동성은 일반고는 46점, 소년원은 54점으로 소년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모험성은 일반고는 51점, 소년원은 49점으로 일반고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감정어입은 일반고는 50점, 소년원도 50점으로 비슷한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4. 성격검사 1부와 Ⅲ부의 하위척도에 대한 일반고-소년원의 평균차이

성격 검사	하위척도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검증		
					t	자유도	유의 확률
1부	정신병적 경향성	일반고	3.20	2.35	-230.285***	264.147	.000
		소년원	81.54	3.43			
	외향성-내향성	일반고	11.67	3.08	-2.616**	285.903	.009
		소년원	12.71	3.78			
	신경증적 경향성	일반고	11.40	5.54	-4.087***	296	.000
		소년원	14.12	5.95			
	허위성	일반고	6.97	3.35	3.101**	296	.002
		소년원	5.73	3.58			
	중독성	일반고	8.66	4.06	-2.852**	296	.005
		소년원	10.01	4.12			
범죄성	일반고	8.18	4.42	-3.893***	296	.000	
	소년원	10.30	4.95				
Ⅲ부	충동성	일반고	5.74	2.94	-6.647***	289.115	.000
		소년원	8.20	3.42			
	모험성	일반고	7.94	3.38	1.761	296	.079
		소년원	7.21	3.73			
	감정어입	일반고	8.32	2.47	-.499	295	.618
		소년원	8.47	2.55			

\*\*\* : P<.001 \*\* : P<.01

이들 아이젠크 성격검사 1부와 Ⅲ부에 대해 하위척도별 일반 고교생과 소년원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위 [표 4]과 같은데, 모험성과 감정어입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신병적 경향성은 일반고와 소년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소년원생들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t=-230.285, p<.001$ ). 이에 의하면 소년원생들이 공격적이며 정서적으로 냉담하며, 동정심이 부족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에 대해 매우 둔감하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위협을 무릅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성-내향성척도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2.616, p<.01$ ). 이에 의하면 소년원생들이 사교적이고 활발하며 모험심이 강하고 활동적이지만,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에서도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4.087, p<.001$ ). 이에 의하면 소년원생들의 감정변화가 심하고 우울해지며, 비합리적이고 강직하며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위성 척도에서는 일반 고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3.101, p<.01$ ). 이를 볼 때, 일반 고교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년원생들이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독성 척도에서도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2.852, p<.001$ ). 이에 의하면 범죄청소년들이 섭식장애와 특히 병적 기감을 심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강한 사람과 중독성이 강한 사람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년원생들이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성 척도에서도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3.893, p<.001$ ). 이 범죄성 척도는 비행자와 상습적 범행자를 감별 및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척도의 점수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점수와는 서로 관련이 있어서 범죄성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신경증적 경향성의 점수도 높다는 것이다. 이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감정이 쉽게 상하고, 자주 실증을 내며, 불면증이 심해 걱정하고,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범죄청소년들도 범죄성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에서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동성 척도에서도 소년원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6.647, p<.001$ ). 충동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생각하는 일이 없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

뜻이 있다. 이에 의하면, 소년원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모험성과 감정이입 척도에서는 양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끝으로, 아이젠크 성격검사 I·III부의 하위척도 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신병적 경향성은 모험성과 감정이입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척도들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반해 허위성과는 부적 상관관계( $r=-.196, p<.001$ )가 나타났다. 따라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이 허위성은 낮으며, 반대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낮은 사람이 허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성-내향성은 충동성( $r=.228, p<.001$ ), 모험성( $r=.308, p<.001$ )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성( $r=-.155, p<.001$ ), 중독성( $r=-.148, p<.01$ )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충동성과 모험성이 높은 반면, 허위성과 중독성은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증적 경향성은 모험성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허위성( $r=-.325,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허위성은 낮고, 중독성, 범죄성, 충동성, 감정이입 등의 성향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허위성은 모험성을 제외한 중독성( $r=-.437, p<.001$ ), 범죄성( $r=-.301, p<.001$ ), 충동성( $r=-.459, p<.001$ ), 감정이입( $r=-.149, p<.01$ )등의 하위척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허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성, 범죄성, 충동성, 감정이입 등의 성향이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고교생들은 허위성이 높고, 다른 성향은 낮은 것과 상관이 있다고 보여 진다.

중독성은 모험성을 제외한 범죄성( $r=.943, p<.001$ ), 충동성( $r=.517, p<.001$ ), 감정이입( $r=.373, p<.001$ ) 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즉, 중독성이 높다고 해서 모험성이 강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범죄성과 충동성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등의 성향과 관계되어 중독성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성도 충동성과 감정이입과 관련이 있으며, 충동성도 모험성과 감정이입과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험성은 외향성-내향성과 충동성과 관련이 있고, 감정이입은 신경증적 경향성, 중독성, 범죄성, 그리고 충동성과 관련이 있으나 허위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종합적 논의

먼저, 성격차원의 하위척도별 두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신병적 경향에서는 일반 고교생과 소년원생의 점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소년원생들이 정신병적 경향성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년원생들이 일반 고교생들 보다 더욱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자기중

표 5. 성격검사 하위척도간의 상호 상관관계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내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허위성	중독성	범죄성	충동성	모험성	감정이입
정신병적 경향성	1								
외향성- 내향성	.137**	1							
신경증적 경향성	.245***	-.068	1						
허위성	-.196***	-.155***	-.325***	1					
중독성	.181***	-.148**	.923***	-.437***	1				
범죄성	.239***	-.113	.968***	-.301***	.943***	1			
충동성	.384***	.228***	.560***	-.459***	.517***	.527***	1		
모험성	-.092	.308***	.102	-.063	.065	.101	.246***	1	
감정이입	.011	.109	.436***	-.149**	.373***	.384***	.245***	.103	1

\*\*\* : P<.001 \*\* : P<.01

심적이고 위협을 무릅쓰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수(1976)의 연구결과, Eysenck 와 Eysenck(1976)의 연구결과, 이인혜·류희정(1987)의 연구결과, 그리고 이상현(2005)의 연구결과와도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외향성-내향성 척도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외향성-내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사교적이며 많은 친구를 사귀고, 항상 기분이 좋으며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또한 모험심이 강하고 농담을 잘하며, 활동적이고 생각이 넘친다. 따라서 자신의 기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성격특성의 진단에 따라, 소년원생들이 외향성-내향성 점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성격특성들이 범죄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현수(1989, 2004)의 연구결과와 Eysenck 와 Eysenck(197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에서도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일반 고교생들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일단 손상된 정서상태가 쉽게 원상복구 되지 않고, 감정변화가 심해 자주 우울해지며, 사소한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일반고교생들 보다 소년원생들이 감정변화가 심하고 비합리적이고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H.J Eysenck(1977)와 이현수(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허위성 척도에 있어서 점수가 높으면 솔직한 자신을 표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자신의 습관이나 행동은 모두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자랑하는 편이다. 또한 남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는 일반 고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고교생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거나 허위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론된다.

중독성 척도에서는 중독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섭식장애, 특히 병적 기감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과 알콜중독자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성 점수도 높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 또한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Eysenck와 Eysenck(1976), 이현수(1976), 그리고 이인혜·류희정(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범죄성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감정이 쉽게 상한다. 그리고 자주 싫증을 내고 건강을 걱정하며,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성 점수는 비행자와 상습적 범죄자를 감별 및 진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척도의 점수와 신경증적 경향성의 점수와는 서로 관련이 있어서, 범죄성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신경증적 경향성의 점수도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소년원생들이 범죄성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현수(1989)와 H.J Eysenck(1967)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충동성 척도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없으며, 얼떨결에 일을 처리하는 버릇이 있다. 나중에 가서는 원하지 않은 일에 자주 관여하게 되며, 일의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도 소년원생들이 충동성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소년원생들이 말하고 행동할 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Barratt[19], Eysenck(1977), 그리고 이상현(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모험성과 감정이입 척도에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에 심도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표준화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 일반 고교생들은 정신병적 경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중독성에서는 표준화집단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났고, 외향성-내향성, 허위성과 범죄성은 표준화집단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년원생의 경우, 정신병적 경향성에서는 비슷한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외향성-내향성, 허위성, 범죄성에서는 표준화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결과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성격검사의 9개 하위척도에서는 두 집단간에 정신병적 경향성에서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외향성-내향성 경향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신경증적 경향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충동성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범죄성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충동성에서는 소년원생들의 점수가 높아 그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성향이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성격차원의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이 강하고 외향적이며, 신경증적 경향이 높은 사람이 충동성, 범죄성, 충동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 정신병적 경향성과 신경증적 경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충동성 점수가 높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허위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충동성, 범죄성, 충동성, 감정이입의 성향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충동성이나 범죄적 성향은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볼 때 일반 고교생들이 허위성이 높은 반면, 소년원생들은 일반 고

교생보다는 허위성은 낮지만, 이 외의 성향들이 복합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어떠한 성격특성들이 범죄유발의 요인이 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허위성의 경우에는 소년원생보다 오히려 일반 고교생의 점수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모험성과 감정이입의 성향에서는 두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아쉬우며,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1] 김준호, 광대경, 노성호, 박철현, 이동원, 이성식,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 [2] 경찰청, *경찰백서*, 2007.
- [3] D. A. Andrews and J. Bonta,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 Anderson Publishing Co., Cincinnati, OH, p.46, 1998.
- [4] H. J. Eysenck and M. W. Eysen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New York: Plenum Press, 1985.
- [5] 이인혜,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 추구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126-136, 1991.
- [6] 이현수,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우성문화사, p.388, 1989.
- [7]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전정판)*, 대왕사, p.346, 1985.
- [8] H. J. Eysenck,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IV, p.405, 1977.
- [9] 이현수, *성격 및 개인차의 심리학*, 우성문화사, p.387, 1989.
- [10] 이현수, *이상행동의 심리학(전정판)*, 대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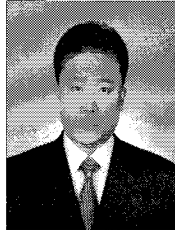
p.346, 1985.

- [11] D. A. Andrews and J. Bonta, (1998), *The Psychology of Criminal Conduct(2nd ed.)*, Anderson Publishing Co., Cincinnati, OH, p.2, 1998.
- [12] 이인혜, 류희정, “정신분열증과 비행집단간의 성격특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제6권 제1호, p.98, 1987.
- [13] 이수정, 허재홍, “잠재적 범죄위험 요인으로서의 정신병질”,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41-45, 2004.
- [14] Vold, Bernard, Snipes, 강동범(역), *범죄학이론*, 길안사, p.118, 2000.
- [15] 이인혜, “범죄행동과 성격특성의 연결: 정신병적 경향성, 외향성, 충동성, 그리고 감각 추구 성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127, 1991.
- [16] H. J. Eysenck, *The Biological Basis of Personality*,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IV, pp.405-411, 1977.
- [17]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p.57, 2005.
- [18] 이현수,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 및 해석을 위한 지침서, 학지사 부설 학지 심리 검사 연구소, pp.31-32, 2004.
- [19] E. S. Barratt, “The Biological Basis of Impulsiveness: The Significance of Timing and Rhythm Disord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4, No.4, pp.387-391, 1983.

저자 소개

김종수(Jong-Soo Kim)

정회원



- 2002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학석사)
- 2006년 8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경찰학박사)
- 2004년 2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부 연구교수

<관심분야> : 경찰인사, 자치경찰